



보도 일시	2022. 5. 12.(목) 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5. 12.(목)
담당 부서	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	책임자	과장 백 현 (054-912-0416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숙 (054-912-0422)

‘우크라이나 살아남은 고양이, 안락사 위기’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

< 보도내용 >

조선일보는 5월 11일(수), “농림축산검역본부는 A씨의 고양이를 미국 쪽으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.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“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을 발급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”라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장 >

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을 언급한 이유는 A씨의 반려동물이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는 절차*에 대해 안내한 것입니다.

- * 현행 동물검역 규정상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된 반려동물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반송이 가능한 제3국으로 보낸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면 국내에서 검역 절차 진행 가능

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상황으로 인해 동물검역 행정 기능이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, 해당 동물의 검역 절차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